



김국영(왼쪽 두번째)이 지난 26일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5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선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혜림(왼쪽 두번째)이 26일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5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100m 허들 결선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육상 김국영·정혜림 나란히 '금 질주'

김국영 육상선수권 100m·계주 우승...올림픽 기준 통과는 실패 정혜림 100m 허들 2연패...조선대 김명하 남자 멀리뛰기 우승

광주시청 육상팀 김국영과 정혜림이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일궈냈다. 김국영은 아쉽게도 도쿄올림픽 기준기록(10초05)을 통과하지 못해 도쿄행이 무산됐다. 김국영은 내년 아시안 게임과 세계대회에서 도전을 이어간다. 김국영(30)은 26일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5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선에서 10초26으로 우승했다. 2위는 10초42의 이규형(24·경산시청)이 차지했

다. 이날 김국영은 순위가 아닌 기록과 싸웠다. 4년 전 자신이 10초07의 한국기록을 세웠던 결선에서 10초05의 새로운 한국기록을 작성하면서 도쿄올림픽 출전도 확정하는 꿈을 꾀었다. 하지만, 부상 탓에 충분히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김국영에게 10초5의 벽은 높았다. 7월 23일에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의 육상 종목 '기준기록 인정 기한'은 29일이다. 김국영에게는 이날이 도쿄올림픽 기준기록을 통

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기준기록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도 랭킹 포인트로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경기 후 김국영은 "최선을 다해 후회는 없다"며 "부상 회복 후 최상의 컨디션으로 뛰어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종 목표인 9초대 진입을 향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7월과 8월에 개최되는 대회에 출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김국영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100m 최초로 올림픽 기준기록(당시에는 10초16)을 통과하며 본선행에 성공했다. 2015년 베이징 세계선수권(10초16), 2017년 런던 세계선수권(10초07)도 기준기록을 통과하며

당당하게 메이저 무대에 섰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기준기록 10초05는 넘지 못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뒤틀림이 한번만 붙어 왔어도 기준기록을 통과할 수 있었을텐데 여러가지로 아쉬움이 많다"며 "올림픽은 무산됐지만 내년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며 한국신기록에 도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국영은 올림픽 기준기록 통과 무산이라는 아쉬움을 달고 이날 오후 진행된 계주경기에 나서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강이민, 김민준, 김국영, 여호수아가 차례로 호흡을 맞춘 광주시청은 남자부 4×100mR에서 39초79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했다.

김국영은 2022년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재도약을 노린다. 현재 한국 남자육상 단거리는, 김국영이 포기하면 누구도 세계 메이저대회 기준기록에 도전할 수 없다. 여자부 100m 허들 결선에서는 정혜림(34)이 13초42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한정미(25·광주시청)는 여자부 400m에서 56초64로 김지은(전북개발공사·56초4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김명하(21·조선대)는 남자부 멀리뛰기 결선에서 7m78을 뛰어 정상에 올랐다. 여자부 멀리뛰기에서는 유정미(27·안동시청)가 6m23으로 우승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창단 1년' 동구 복싱단 전원 메달

전국중별선수권 은 3·동 1 수확...광주 복싱 부흥 견인차 역할 특출



광주 동구 복싱부가 2021 전국중별복싱선수권 대회에서 '전원 메달'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27일 동구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폐막한 대회에서 복싱부는 은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땀다. <사진> 69kg급 이동진, 64kg급 한영훈, 56kg급 이행석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52kg급 최현태 선수는 동메달을 수확했다. 지난해 24년 만에 재창단한 동구 복싱부는 출범 1년을 맞아 전원 메달 획득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실업팀 하나 없어 '복싱의 불모지'로 불렸던 광주에서 2006 도하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인 신명훈 감독이 명가 재건을 이끌고 있다.

신 감독은 "동구 복싱부가 꾸준히 성장하도록 도와준 동구청, 복싱협회, 광주시체육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주민께 희망과 기쁨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어려웠던 시절 시민에게 큰 기쁨을 줬던 광주 복싱이 최근 잇단 승전보로 추억을 소환하고 있다"며 "복싱부가 계속 성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복싱부는 올해 4월 열린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재창단 첫 대회 승리를 기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배구 광주대표에 비오신코리아·조선대

10월 열리는 전국체전 출전

비오신코리아(대표 강종욱)와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가 배구 광주대표로 전국체전에 참가한다. 강동완 감독과 나철수 코치가 이끄는 비오신코리아는 지난 26일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 102회 전국체전 배구 남자일반부 예선대회에서 독도렌트카를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2(31-29 22-25 25-18 24-26 15-11)로 제압했다. 비오신코리아는 이로써 오는 10월 경북 김천에

서 개막하는 제102회 전국체전에 광주 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이날 경기에서 비오신코리아는 신생팀 독도렌트카의 패기에 밀려 첫 세트부터 듀스를 거듭하는 등 고전했다. 하지만 리베로 한창현의 안정된 리시브와 세터 김정석의 노련한 볼배급을 토대로 레프트(기동균·이여송), 라이트(신우성), 센터(김정민·최수형) 공격진이 고비마다 득점타를 성공시키며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비오신코리아는 지난 5월에 '2021 신협중앙회 장배 한국실업배구연맹전' 2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볼트 넘보는 '만 17세' 나이턴

미국 육상대표 선발전 200m 19초88로 볼트의 20세 미만 기록 넘어

2004년에 태어난 천재 스프린터 이리언 나이턴(17·미국·사신)이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35·자메이카)가 세운 높은 벽을 매우 빠른 속도로 무너뜨리고 있다. 일단 나이턴은 만 17세에 볼트의 만 20세 미만 200m 기록을 넘어섰다. 나이턴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육상 미국 대표 선발전 남자 200m 준결선에서 19초88로 전체 1위에 올랐다. 19초88은 1986년생인 볼트가 만 18세였던 2004년에 작성한 19초93을 0.05초 앞당긴 '만 20세 미만 세계 최고 기록'이다. 이날 나이턴은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200m 챔피언 노아 라일스(24)와 같은 준결선 2주에서 뛰었다. 직선 주루에 진입하면서 나이턴과 라일스가 나란히 속도를 높였고, 나이턴이 우

승에 앞서서 결승선을 통과했다. 기록 추이를 보면, 나이턴의 비교 대상은 200m 현역 최고 라일스가 아닌 '역대 최고' 볼트다. 나이턴은 6월 1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호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육상 트랙리그 미팅 남자 200m에서 20초11로 우승하며 볼트가 보유하고 있던 만 17세 이하 세계 기록(20초13)을 경신했다. 경기를 치를수록 나이턴은 매우 빠르게 기록을 단축했다. 나이턴은 6월 21일 도쿄올림픽 선발전 예선에서 20초04를 찍더니, 27일 준결선에는 19초88에 레이스를 마쳤다. 볼트는 만 18세였던 2004년(19초93)에 20초 벽을 넘어섰다. 19초8대에 진입한 건, 만 스무 살이던 2006년(19초88)이었다. 나이턴은 만 17살인 올해, 볼트의 만 20세 개인 최고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발신제한
2관	발신제한
3관	콰이어트 플레이스 2, 메이데 인 루프탑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4관	킬러의 보디가드 2
5관	크루엘라
6관	콰이어트 플레이스 2
9관	콰이어트 플레이스 2, 킬러의 보디가드 2
7관	씨네커를 발신제한
8관	씨네커를 루카,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모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

김민지 첼로 리사이클

일시: 2021. 07. 13.(화)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엽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